

좋아 보이는 사진에서 찾은 9가지 비밀

황인선
미학적 사진학교

대표강사 프로필



성명 황인선 교수

기분정보
주계예술대학원 예술경영 박사
동국대 문화 예술대 영화, 석사

경기도 관광교육원 조빙교수
전계인물동공위원회 사무국장
전종소리발전총재단 연수팀장

연락처 010-6342-3721 / 블로그 : biztv.naver.me

강의 미학적 사진창작과정(입문-향약 사진)

주요 강의 및 활동

> 한국형 사진 교육과정 "미학적사진창작" 개발, 운영

● **미학적 사진창작 교육개발**

- (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학적사진창작 과정 운영
- (원) 현대대학원 문화학과 미학적사진창작 과정 운영
- (원) 조양정보 미학적사진창작 운영
- (원) 서울특별시 사진대회 기획 및 가스공사, 환경공단 등 심사

● **영화 연출 / 제작 관련강의**

- 영화예술 개론 (호서대학교, 영지전문대학교-출강)
- 영화의 이해, 영화제작론 (호서대학교, 출강)

● **주요전시**

- 디지털영화영상 김라잠이 2005 어울미디어 / 420p
- 프로젝트 제작실무 / 1998 미진사 / 350p
- CATV영상제작기법 / 1993 기다리 / 382p 외

● **주요상훈**

- 신일재단부 장관상 (중소기업지원 유공자)
- 임보훈장부 장관상 (신소트트 개발상)
- 중소기업성장상 (디지털 콘텐츠 대상)

● **주요활동**

- (사) 한국 청소년 미디어연결 상임멤버
- (사) 한국디지털영상개발학교
- (사) 한국디지털콘텐츠진흥원 홍보이사 등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Contents

1. 현대의 사진이란?
2. 좋아 보이는 사진이란?
3. 사진 프레임 안의 요소들
4. 이미지로 각인되자
5. 자신만의 독특한 색을 활용하자.
6. 큰 배열에 신경써야 한다.
7. 빛의 색온도를 활용하라
8. 이야기로서의 사진
9. 철학과 가치가 중요하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 현대의 사진이란?

1). 현대사진

과학+예술+기술 - 기술과 감성의 조화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이고 친숙한 재현 매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감성과 이성이 결합된 문화적 코드를 생산하고 "보여주는" 행위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Henri Cartier-Bresson (1908 - 2004) 프랑스

2). 기술의 문제

○ 카메라 사용법에 있어서의 문제
→ 모든 정답은 설명서 안에!!

○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
→ 모든 정보는 카메라 안에!!

*셔터스피드, 조리개, 레벨(혹은 커브), 화이트밸런스 등 그리고 그것을 읽고 사용하는 법

*눈으로 보는 것과 데이터로 기록되는 것의 차이점


○ 카메라 조작의 문제
→ 크레이티브 기능을 활용!!

*장비의 발달 덕분에 촬영기술 부족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의 질의 격차가 좁아짐

*표현으로서의 노출측정 방식(원리) 알아두기

3). 감성의 문제

보이지도 않는 마음을 어떻게 사진으로 보여주어야 할까?



4). 잘 찍은 사진?

언어로서의 사진, 영상, 혹은 이미지 : 시각적으로 약속된 코드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

*작가(촬영자)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잘 전달되는가? : **주제와 주제**

2. 좋은 사진이란?

1). 좋은 사진이란?

- 한번보고 또 보고 싶은 사진
- 멍하니 바라보게 하는 사진
- 좋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
- 좋은 사람이 찍은 사진
- 좋은 대상(소재)을 찍은 사진
- 내가 좋은 사진
- 기타 등등

→ 당신의 감성(혹은 지성)을 자극하는 사진

→ 스스로 좋은 사진을 찾아가자!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껴라

→ 많이 찍어라!

→ 피사체를 두려워하지 말자!

“대상과 작가의 대화로서의 사진”


○ 메시지(message) / 이야기(story) / 품질(definition)

2). 좋은 사진을 만드는 요소

- 카메라의 화질
- 피사체를 찾아내는 인내력
-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순발력
- 빛을 다루는 능력
- 심도와 화각을 고려한 렌즈 선택
- 주제를 강조하는 프레임과 구도
- 이야기를 만드는 후보정

↓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피사체를 담은 “사진가의 시선”**




로버트 프랭크, 정치집회(뉴저지, 1955-56)

야구왕 베이브 루스의 은퇴식을 찍은 나다니엘 페인은 뉴욕 양키즈의 영구결번 3번을 달고 있는 야구왕의 뒷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그를 대표하는 등번호와 그의 마지막 등장에 환호하는 팬들의 모습은 야구영웅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하다.

우리는 이 사진을 꺼낼 때마다 특별했던 베이브 루스의 영광의 시대를 떠올리고 그에 대한 존경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다니엘 페인, [베이브 루스, 등번호 3번을 은퇴하다.] Nat Fein Estate - 1949년 필리처상 수상

좋은 사진이란?

3). '시선' (point of view), 즉, 바라봄

나다니엘 페인은 도대체 왜 뒤통수를 찍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사진에 감명을 느끼는 걸까?

찍히는 사람이나 대상의 마음을 느끼는 것. 찍히는 대상에서 발견한 "무엇"을 담아내고 싶은 "사진가의 바라봄"이다.



Tomoko Uemura in Her Bath, Minamata 유진스미스 (1972)

이탈업엘르의 피에리 (1498)



로버트 프랭크, 피레이드 (뉴저지, 1955-'56)

좋은 사진이란?

4).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누구나 찍을 수 없는 것 ...



○ 좋은 사진의 요건 '성실함'
윤미네집, 디카페 일기 사진집이 이토록 회자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라도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끈질긴 성실함으로 따뜻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용각 사진집 (윤미네집)



모리 유지 사진집 [디카페 일기]

좋은 사진이란?

5). 희노애락(喜怒哀樂)의 눈높이에서



사진작가 브레송의 말처럼 50년 동안 가난함의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 렌즈로 담아온 한 사진작가. '인간'이란 한가지 주제를 가지고 평생 사진을 촬영해 온 사진작가. 최민식

그의 사진에서 우리는 감추고 싶었던 한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여과 없이 그대로 느낄 수 있기에 그의 사진을 좋아한다.

좋은 사진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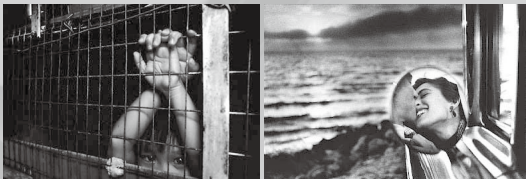
6). 한발작 더 ..., 카파처럼 다가서라



"만약 당신이 찍은 사진이 별로 좋지 않다면, 그건 당신이 충분히 가까이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Robert Capa (1913. ~ 1954.)

좋은 사진이란?

7). 피사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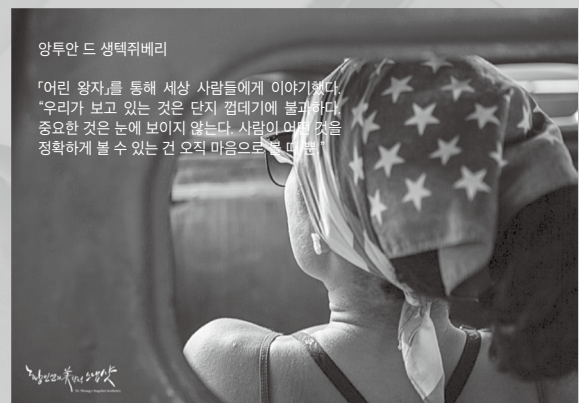



△ 조디 콕이 베트남 난민캠프에서 만난 아이. △ 엘리엇 어윳(Eliot Erwitt)의 유머 넘치는 작품.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삶에 대한 의지를 느끼고자 한다. 다른 방식으로 주제에 가까이 가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바로 생겨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환상적인 사진이 될 것이다. 환상적인 사진이 되게끔 하는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보통 내적인 거라고 하죠. 걸모습이 아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응답하는 방식, 아니면 사진가인 제게 응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 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삶의 지이기도 해요." - 조디 콕(Jodi Cobb)

양투안 드 생택쥐베리


「어린 왕자」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겉데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3. 사진 - 프레임 안의 요소들



- Theme
- Storytelling
- Light
- Color & Tone
- Movement
- Connection
- Body Language
- Face Emotion
- Composition
- Positive & negative Space
- Leading Line
- Graphics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1). 핵심 주제의 확립

➢ 좋아 보이는 것은 잊히지 않는다. (사람의 기억 속을 파고드는 사진의 비밀)

-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기억시키려는 많은 노력(기법 활용)들은 대개 헛수고로 돌아간다.
- 왜? 기억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 속에 우연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우연,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까?

① 기존 방식을 노하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

② 남과 경쟁하지 말고 스스로와 경쟁하라

③ 아름다움을 쫓지 말고, 보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2). '관점(Perspective)'의 개입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견해를 규정하는 사고의 기본 출발점.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1928-)
http://platform.ifac.or.kr/webzine/view.php?cat=6&seq=247&page=1&w_job6=8&com=


 좋은 사진이란?

3). 주제의 표출 → 표현과 의도


	주변	
주관-감성		주관-이성
감성 ←		→ 이성
객관-감성		객관-이성
	객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아이디어는 원조가 없다, 그러나 표현은 원조가 있다"

→ 작품의 "가치"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표현"에서 결정된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4). 사진은 스토리이다.

□ → 누구의 스토리인가? '나'


□ → 나의 이야기로 만들 것 (추억, 기억, 메시지)


일상적인 주제, 그러나 차이를 부각시킬 것

□ →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것인가?

□ → 극적인 표현을 활용할 것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진?!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4. 이미지로 각인되자

바라 보는 순간
감동을 주는 것은? "해학"



<유머가 있는 풍경>광화문 - 1991 김녕만 작가

➢ **우리 몸속에 잠자는 유머의 DNA를 깨워야 한다.**

✓ 양반과 서민의 갈등을 예술로 승화시킨 하화탈놀이 는 고려중반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결 눈질 Sidelong Gance - 1948 로베르 드와노 김녕민 작가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Elliott Erwit' 엘리엇 어윗 ' 1995, 마드리드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5. 자신만의 "독특한 색상"을 활용하자

알렉스 웹 (Alex Webb, 1974~)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독특한 색상"의 활용

- 주제 색상 활용
- 한색과 난색의 조화
- 동일색상 톤 활용
- 특정물(심벌마크) 사용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1), "주제 색상"의 활용

보는 것만으로 감정이 생긴다 : 색의 배열만으로 매출을 올린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2) 70:25:5 비율을 생각하라

색상이 조화롭게 보일 때 비율은 70(기본색상) : 25(보조색상) : 5(주제색상) 이런 비율로 배색된 공간을 보면 사람들은 조화롭다 느낀다.

스타벅스의 초록색 이마트의 노랑색은 5%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중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 예제 사진을 살펴보면 **색상이 어떻게 단순화되는지 확인하자**. 스펙트럼의 모든 색조가 사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사진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색상이 지배(지배색)한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색상들 중에서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색상의 불균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주목하자.

알렉스 웹

중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데이비드 알란 하비 (david alan harvey)

중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3) 색 배열이 신뢰를 만든다.

■ 색상조화

색상의 조화란 둘 이상의 색이 배색되었을 때 각 색상간에 아름답고 쾌적한 관계가 성립

색채의 조화는 명도차와 채도차에서 영향이 있지만 **색상 조화가 기본**

중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TV Newsroom의 컬러와 카카오 톡의 컬러

자동차 광고와 대표 차량의 색상

중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 색의 느낌을 활용하자.

빨강과 파랑 방이란 유명한 실험도 있다.

사람들은 빨강색을 보면 흥분하며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지어는 덥다고 느끼게 된다.

즉, 생리적 반응의 색이다.

파랑 방은 정적이고 아늑하게 하는 색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중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데이비드 알란 하비 (david alan harvey)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데이비드 알란 하비 (david alan ha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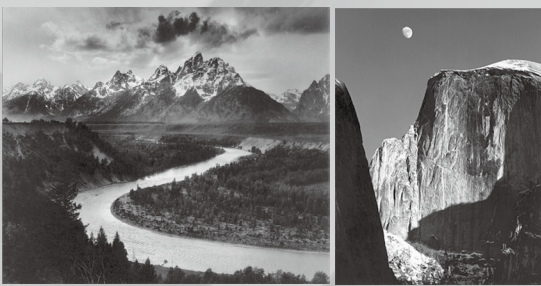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6. 톤 배역도 신경써야 한다

> 사진의 존 시스템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엔젤 아담스 (Angel Ad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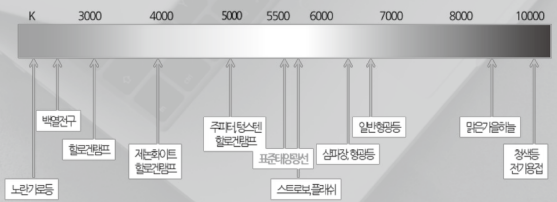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Ansel adam "moonrise over hernandez" 1944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7. 빛의 색온도를 활용하라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1) 고급 레스토랑

빛의 역할은 음식 위의 고명과 같다. 음식에서 고명은 마지막에 맛을 내주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한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2). 화장실 셀카




아름다워지는 빛의 색 온도 3500K : 어떤 곳이 사진 찍기의 명소가 되는가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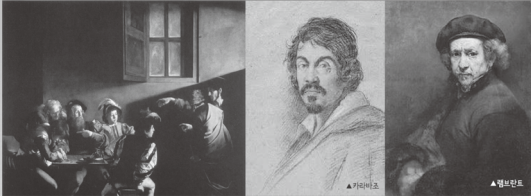


황 인선 Myanmar 2019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흰색에서 검은 색까지 무채색 단계의 대비는 가장 기본적인명도 대비이다.

3). 회화의 명도대비
 중세 종교적 테마의 그림에서 빛과 어둠, 신성과 세속 등의 상징적 의미로 흔히 사용되었다.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부분적인 밝은 빛과 색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어두운 배경을 넓게 사용하는 극적인 명도 대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화가이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 충분히 어둡게, 충분히 밝게, 차이를 이용하라




David Alan Harvey - 제주해녀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8. '이야기'로서의 사진. (메타언어로서의 사진)





섬 이야기 - 황인선 2017

'이야기'가 사라지는 이유


- ✓ 사진의 이야기(작가가 만들어낸 주제 의식)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임
- ✓ 이야기의 '전달 방식'은 곧 사진의 문법이며, 사진술이라고 할 수 있음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1). 사진으로 말하기/사진 읽기


- 왜 사진(그림/영화/다큐멘터리) '보기'가 아닌 '읽기'인가?
- 보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교류(교감)을 위하여
- 좋은 사진의 요건들(느낌?! 분위기?!, 정서?)!


© Ralph Gibson_ Untitled, 40.6×50.8cm, 1970 Ralph Gibson - 1970년, 몽유병자 Somnambulist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2). 사진의 문법들



→ 같은 사진?
 → '사진으로 말한다(사진을 읽는다)'는 것은 사진에도 '문법'이 존재한다는 것
 → 구도/ 색감/ 노출/ 빛... 등등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문법'은 존재한다 (law(X) rule(O))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의식'이 필요하다
 → 좋은 사진은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객관적 결과물"이다.
 → 사진은 "예술"의 달을 쓴 "과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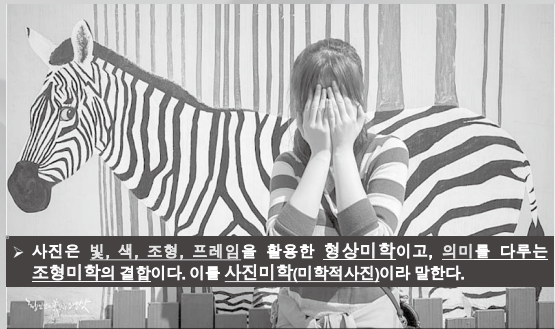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9. 형식과 기법은 중요하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 미학적 사진은 좋은 사진을 추구합니다.




➢ 사진은 빛, 색, 조형, 프레임을 활용한 형식미학과, 의미를 다루는 조형미학의 결합이다. 이를 사진미학(미학적사진)이라 말한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어떤 의도로 무엇을 찍을 것인가?

전문작가는 관객을 자극하는 특별한 단편 포착한다. 예술사진이 있는 그대로 모습 재현하는 것은 금물이다.




황인선 리오스, 2017

- 사진은 "어떻게 찍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찍느냐"가 중요하다
- 유희적인 이유든,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든 모든 사진촬영에는 촬영자의 감정이 실린다.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전쟁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

Sergei Ilnitsky (세르게이 일니초키) 러시아



Jérôme Sessini (제롬 세시니) 프랑스

 MEMO

 MEMO

 MEMO

 MEMO


 좋아 보이는 사진의 비밀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vs. 노순택



Andreas Gursky, Pyongyang V, 2007





노순택, 붉은 들, 2005년.

5
5

감사합니다



Copyright © 2012-2019 by FOTOLAB.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2.0/ko/>

몇몇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학적사진학교
FOTOLAB www.biztv.blog.me 강사 - 형민선
biztv@naver.com
T : 010-6342-3721